

2014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국어 영역

B형 정답

1	⑤	2	①	3	⑤	4	①	5	④
6	⑤	7	③	8	③	9	④	10	④
11	②	12	①	13	②	14	⑤	15	③
16	⑤	17	③	18	④	19	④	20	②
21	②	22	⑤	23	④	24	②	25	③
26	①	27	④	28	③	29	①	30	③
31	②	32	④	33	③	34	①	35	②
36	⑤	37	③	38	⑤	39	②	40	③
41	①	42	③	43	⑤	44	①	45	③

국어 영역

B형 해설

** 화법 **

1. [출제의도] 토론 참여자의 말하기 파악하기

반대 1은 입론에서 휴대 전화의 유용성, 휴대 전화 사용 예절 교육의 필요성, 휴대 전화 보관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해 주장을 펼치고 있다. 찬성 1이 주장한 내용 중, 수업 집중력 저하에 대해서는 반박하고 있지만 휴대 전화 중독 및 건강 문제, 휴대 전화 수거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한 내용은 없다.

① 사회자는 교내 휴대 전화 소지에 따른 문제점과 그에 대한 논란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휴대 전화 일괄 수거에 대한 찬반 논쟁을 선정한 배경이 된다. ② 찬성 1은 휴대 전화 수거로 인해 예상되는 불편함에 대해 반대 측의 반론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③ 찬성 1은 휴대 전화 중독 관련 신문 기사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주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④ 반대 1은 휴대 전화가 수업 시간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 [출제의도] 입장에 적합하게 자료 활용하기

<보기>의 자료는 휴대 전화를 일괄 수거한 후 보관하다가 분실했을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신문 자료이다. 이것은 찬성 측에서 휴대 전화 수거에 따른 문제점을 주장한 반대 측의 논박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② <보기>를 수업 시간 중 학급 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하기 어렵다. ③, ④, ⑤ 찬성 측 주장이므로 자료 활용 입장이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활용 방안도 자료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3. [출제의도] 토론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참여하기

확인 질문은 상대방의 주장(입론)의 허점을 지적하거나 논거를 반박해야 한다. 반대 측의 수업 시간에 휴대 전화를 학습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 측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제기함으로써 반박하는 확인 질문을 할 수 있다.

① 반대 측에서는 개인의 자유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② 휴대 전화 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찬성 측의 확인 질문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 ③, ④ 반대 측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다.

4. [출제의도] 말하기 계획 평가하기

발표 내용 중, 교실 내 미세 먼지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은 찾을 수 없다.

② 창문 열기, 물청소하기, 냉난방 장치 필터 청소하기, 녹색 식물 키우기 등의 교실 내 공기 질 개선 방안이 안내되어 있다. ③ 미세 먼지를 중국에서는 ‘죽음의 먼지’, 미국에서는 ‘조용한 살인자’로 부르는 것으로 보아 미세 먼지의 유해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기준치보다 높다는 것은 환기가 되지 않아 교실 내 오염 물질이 외부로 배출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환기 상태를 알 수 있다. ⑤ 교실 내 공기의 오염이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등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5. [출제의도] 말하기 효과 평가하기

발표자는 발표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교실 내 공기 질 개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실 내 공기의 오염 물질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발표 주제의 의의를 말하고,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교실이 답답해 하면~’의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마무리하고 있다.

① 발표 내용의 순서를 제시하지 않았다. ② 전문가의 이론을 인용하지 않았다. ③ 발언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반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활용했는지는 알 수 없다. ⑤ ‘학우 여러분’은 공적인 상황에 어울리는 호칭어이다.

** 작문 **

6. [출제의도] 논설문을 쓰기 위한 자료 활용하기

<보기 1>에서 기부 문화의 현황과 문제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자료로 (가), (나)-1을, 기부 문화 활성화 방안 자료로 (나)-2, (다)를 활용할 수 있다. <보기 2>의 글쓰기 계획은 본문에서 현황 및 실태, 문제점 분석, 활성화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은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측면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에서는 모금 단체에 대한 신뢰성이 낮은 문제점을, (나)-2에서는 기부 단체의 투명성 강화가 활성화 방안임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를 통해 기부 단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방안을 내용으로 다루는 것이 적절하지, ‘복지 제도 확대 시행’의 내용을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7. [출제의도] 논설문의 특성을 고려한 글쓰기

<보기 2>의 주제는 ‘기부 문화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이다. ‘티끌 모아 태산’은 관용 표현으로 ‘작은 것이라도 모이면 큰 것을 이룬다.’는 의미로 작은 나눔도 모이면 힘이 된다는 기부의 의미가 드러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동참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은 글의 주제와 관련이 있다.

②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시작이 중요하다는 의미의 관용 표현을 활용했지만 기부의 의의를 드러내지 않았다. ①, ④ 관용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도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관용 표현을 활용하였으나 기부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았고 주제와 관련이 없다.

8. [출제의도] 내용 요약하기

원문 1문단에서 기억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순행 억제’, ‘역행 억제’, ‘유사 억제’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들을 포괄하여 ‘심리적 억제’란 중심 개념으로 제시하였으므로 ㄴ은 적절하다.

또한 원문의 ‘혼재해’는 ‘뒤섞여’로, ‘체계적으로’는 ‘짜임새 있게’로 표현하여 자신이 이해한 말로 바꿔 썼으므로 ㄷ은 적절하다. 그러나 요약문은 육하원칙을 쓰지 않았으므로 ㄱ은 적절하지 않고, 원문의 내용 순서와 동일하므로 ㄹ도 적절하지 않다.

9.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 파악하기

도표에는 부모님의 노후 생계에 대한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줄어든다. 반면 신문 기사의 자료에는 부모를 위해 헌신한 사례가 제시되었다. 이를 볼 때 두 자료는 효에 대해 유사한 태도가 나타났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나타나므로 어려움이 없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글의 중심 화제인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효의 방법’과 관련된 제목을 정하여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효에 대해 글을 쓰겠다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② 도표에 나온 10년 사이에 나타난 청소년의 인식 변화를 활용하여 효에 대한 청소년의 부정적인 인식을 문제로 드러내고 있다. ③ 학생의 글 마지막 부분에서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효의 방법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⑤ 신문 기사만으로는 글감이 부족해서 인터넷 자료를 검색하여 한 병원의 조사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글쓴이의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다.

10. [출제의도] 교쳐 쓰기

㉠은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를 고려할 때 부사어 ‘여전히’는 뒤의 서술어 ‘많다’와 호응을 이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 다음에야) 처음으로’라는 의미를 가진 ‘비로소’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의 자리에는 ‘사물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보거나 찾아봄’을 뜻하는 ‘조사한’이 적절하다. ② ㉠의 앞 문장은 효에 대한 청소년의 의식이 예전 같지 않음을 언급하며 글쓴이의 효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청소년들에게 봉사의 의미를 일깨워 주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문장은 앞뒤 문맥의 내용이 맞지 않아 글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하는 것이 옳다. ③ ㉠은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되었다. ‘모시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므로 문장의 흐름으로 보아 ‘부모님을’이라는 문장 성분을 넣어야 한다. ⑤ ㉠은 단락과 문장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고려하여 바로 뒤의 문장과 순서를 바꾸어야 한다.

** 문법 **

11. [출제의도]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의 표기법 이해하기

‘홀쭉이’는 어근인 ‘홀쭉’에 접미사 ‘-하다’가 붙을 수 있고, 이 어근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된 명사이다. 매미는 어근인 ‘맴’ 뒤에 접미사 ‘-하다’가 붙을 수 없고, 접미사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되었다. 따라서 ㉠과 ㉡에는 각각 홀쭉이와 매미가 적절하다.

12. [출제의도] 표준 발음법 탐구하기

표준 발음법 제10항과 제14항은 겹받침의 발음에 대한 것이다. ‘여덟’의 ‘ㄷ’은 어말에 위치해 있어 표준 발음법 제10항에 따라 [여덜]로 발음한

다.

② ‘앉아’의 ‘ㄴ’은 제14항에 따라 모음 앞에서 [안자]로 발음한다. ③ ‘넓이’의 ‘ㄷ’은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이기에 표준 발음법 제14항에 따라 [널비]로 발음한다. ④ ‘뽕고’의 ‘ㄷ’은 자음 앞에 위치하여 표준 발음법 제10항 ‘다만’에 의해 [뽕꼬]로 발음한다. ⑤ ‘값을’의 ‘ㅅ’은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와 결합되는 경우이기에 표준 발음법 제14항에 따라 [갑쓸]로 발음한다.

13. [출제 의도] 어법에 맞는 문장 이해하기

㉠에서 ‘믿기다’는 ‘믿다’에 접미사 ‘-기’가 결합된 피동사이다. 이에 피동을 나타내는 ‘-어지다’를 결합하여 ‘믿겨지지’로 나타냈으므로 이중 피동에 해당한다.

㉡ ‘어제’는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이다. 그러므로 현재를 나타내는 어미 ‘-는다’를 사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자식’은 자격의 의미를 지니므로, 조사 ‘(으)로서’가 적절하다. ㉣ 아버지는 객체 높임의 대상이므로, 조사 ‘에게’를 ‘께’로, 서술어 ‘주었다’를 ‘드렸다’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 ‘돌이켜 회상했다.’에서 ‘회상’은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한다.’가 사전적 의미이므로 ‘돌이켜’를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다.

14. [출제 의도] 서술절의 특성 파악하기

이 문항은 여러 문장을 통해 서술절의 의미, 기능을 탐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ㄴ의 ‘나무가’는 전체 문장에서 ‘많다’와 함께 서술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ㄷ의 ‘대학생이’는 서술어 ‘되다’가 요구하는 필수적인 성분인 보어이다.

① ㄱ의 ‘토끼는 앞발이 짧다.’의 경우 ‘앞발이’의 서술어는 ‘짧다’이고, ‘토끼는’의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서술절은 ‘앞발이 짧다’이다. ㄴ의 ‘이 산은 나무가 많다.’의 경우 ‘나무가’의 서술어는 ‘많다’이고, ‘산은’의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서술절은 ‘나무가 많다’이다. ㄷ의 ‘우리 오빠는 대학생이 되었다.’의 경우 ‘오빠는’의 서술어는 ‘되었다’이고 ‘대학생이’는 ‘되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보어이다. ② ㄱ의 ‘토끼는’은 ‘앞발이 짧다’의 서술절의 주어이다. ③ ㄴ의 ‘나무가 많다’는 ‘산은’의 서술절이다. ④ ㄱ과 ㄴ의 ‘앞발이 짧다’와 ‘나무가 많다’는 각각 전체 주어 ‘토끼는’과 ‘산은’의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서술절이다.

15. [출제 의도] 담화 성분 생략 표현 파악하기

반장은 선생님의 신발장의 신발을 치우라는 말을 책상의 책을 치우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가)는 목적어와 서술어, (나)는 주어와 목적어가 생략되었으므로 공통적으로 목적어가 생략되었다는 것은 적절한 말이다. ② 반장은 상황 맥락에 따라 (가)에서는 주어를 제외한 문장 성분을, (나)에서는 부사어와 서술어를 제외한 문장성분을 생각하고 있어 상황 맥락에 따라 생략하는 문장 성분에 차이가 생긴다고 볼 수 있다. ④ (라)의 경우 ‘제가’라는 주어와 ‘신발장을’이라는 목적어, ‘치울게요’라는 서술어를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선생님께서 신발을 치우라고 한 말의 대답이므로 문장성분을 복원한다면, ‘제가 선생님께서 시키신 신발장 정리를 끝냈어요’ 정도의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16. [출제 의도] 중세 국어의 특징 파악하기

부서법에 따르면 초성은 단독으로 발음되지 않고 반드시 중성을 붙여 써야 한다. 이때 중성 중 어떤 것은 초성의 아래에 붙여 쓰고, 또 어떤 것은 초성의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붙여 써야 한다.

㉠ 훈민정음의 초성이 발음기관의 모양을 상형하여 기본자 ‘ㄴ’을 만들고 기본자에 가획의 원리

를 적용하여 ‘ㄷ’, ‘ㅌ’을 만든 후 예외적인 이체자 ‘ㄸ’을 만들었음을 보여준다. ㉡ 훈민정음의 중성이 ‘하늘[天], 땅[地], 사람[人]’을 상형하여 기본자를 만들고 기본자를 서로 합하는 합용의 원리를 적용하여 초출자와 재출자를 만들었음을 보여준다. ㉢ ‘ㅇ’을 순음 글자인 ‘ㅂ, ㅃ, ㅅ, ㅆ’의 아래에 이어적어 새로운 글자인 순경을 ‘ㅃ, ㅆ, ㅅ, ㅆ’을 만드는 연서의 방법이다. ㉣ 두 글자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란히 이어쓰는 병서로,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는 ‘각자병서’(ㄱㄱ, ㄴㄴ, ㄷㄷ, ㄴㄴ, ㄴㄴ)와 다른 글자를 나란히 쓰는 ‘합용 병서’(ㄱㄴ, ㄴㄷ, ㄴㄴ)이다.

**** 독서 ****

□ 출전: 박지원, ‘원사(原土)’

17. [출제 의도] 독서 전략 파악하기

전체적인 내용을 살핀 후 세부적인 내용을 읽어야 한다는 내용은 이 글에 언급되지 않았다.

① 3문단의 ‘일과를 정하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고’, ② 4문단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반복해서 생각해야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④ 4문단의 ‘훈고를 따져보며 세밀하게 주석과 풀이를 훑어보아 그 차이를 분별하고 그 음과 뜻을 깨우친다’, ⑤ 4문단의 ‘엄숙하고 공경스런 마음으로 책상을 마주 한다’에서 이 글에 나타난 독서 전략을 찾을 수 있다.

18. [출제 의도] 독서에 대한 생각 비교하기

이 글의 필자(A)는 원래의 의미에 충실하게, <보기>의 필자(B)는 독자가 주체적으로 글의 의미를 해석하고 재구성하며 독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①, ②, ⑤는 이 글과 <보기>에 언급되지 않았고, ③의 사물의 원리를 깨우치기 위한 독서는 A의 생각이지만 B의 생각이 아니다.

**** 인문 ****

□ 출전: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처음 읽는 윤리학’

19. [출제 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5문단을 보면 노예적 개인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면 자신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하지만 양심의 회복을 위해서는 교육과 자신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했으므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양심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① 2문단에, ② 1문단에, ③ 2문단과 3문단에, ⑤ 4문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 [출제 의도]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하기

2문단과 3문단을 통해 주인적 개인과 노예적 개인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다. 주인적 개인은 자신이 세운 삶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지만 노예적 개인은 자신이 세운 원칙이 아닌 무리의 평균적 가치를 따른다.

① 주인적 개인은 자신의 행위에 따르기 때문에 보편적 가치를 긍정한다고 볼 수 없고 노예적 개인은 보편적 가치를 부정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주인적 개인은 외적으로 주어진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체적인 의지를 발휘하여 행동한다. ④ 노예적 개인은 무리에 의존하므로 무리를 배척한다고 할 수 없다. ⑤ 주인적 개인은 욕구를 제어할 수 있고, 노예적 개인은 욕구를 제어할 수 없으므로 모든 욕구에 대한 긍정, 부정은 확인할 수 없다.

21. [출제 의도] 반응의 적절성 평가하기

A와 B는 모두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마음가짐, 즉 자신과의 약속을 가지고 있지만 A는 자신

과의 약속을 지키는데 반해, B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A는 주인적 개인이고, B는 노예적 개인이라고 할 수 있다. ② A가 자신의 마음가짐에 따라 타인을 도운 것은 절대적 가치가 아닌 자신이 세운 행위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다.

니체는, ① A가 행동 원칙을 능동적으로 실천했으므로 좋음이라 평가할 것이다. ③ A는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으므로 양심이 있다고 평가할 것이다. ④ B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고통이므로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할 것이다. ⑤ 양심의 가책을 받은 B가 교육을 받고 양심 회복의 의지를 가진다면 주인적 개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할 것이다.

**** 사회 ****

□ 출전: 김종선, ‘생각의 배신’

22. [출제 의도] 글의 집필 의도 파악하기

1문단에서 마중물 효과의 개념을, 2~4문단에서는 마중물 효과 및 마중물을 활용한 마케팅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마중물로 인해 소비자가 과소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를 바탕으로 5문단에서는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상품을 꼭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는 현명한 태도를 갖기를 당부하고 있다.

① 마중물 효과에 대한 통념의 반박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기업의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을 안내한 후 소비자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쓴 글이다. ③ 마중물 효과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으나, 이론의 변천사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④ 기업의 마중물 마케팅의 한계에 대해서는 설명했으나 다양한 경제 현상이나 경제 활동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23. [출제 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3문단에서 보면, 마중물 효과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마중물로 제품 자체의 가치를 홍보하여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 내고 제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하게 하는 것이다. 즉 소비자의 인식을 긍정적인 쪽으로 변화시키고 구매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기에, 마중물 효과는 소비자의 심리 변화를 기반으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① 처음 경제 불황 극복을 위한 정부 주도의 마중물 효과가 이후 사회사업과 기업의 마케팅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② 4문단의 끝부분을 보면 체리 피커가 마중물을 독점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면 기업의 이윤 창출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했다. ③ 마중물의 혜택이 클수록 마중물 효과가 더 잘 일어난다는 단서는 지문에서 찾아볼 수 없다. ⑤ 기업의 최종 목표는 마중물 마케팅을 통해 기업의 이익을 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다.

24. [출제 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2문단에서 보면 ‘정부의 마중물 효과’는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정책을 말한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하거나 재정 수입을 감소하는 등의 자극을 주어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킨다. 신차 구매 시 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재정 수입을 감소하는 자극을 주어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마중물 효과에 해당한다.

25. [출제 의도] 그래프 추론하여 이해하기

이 그래프의 (가)~(다)는 판매액이 정체를 보이자 마중물을 투입하여 변화하는 기업의 판매액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때 판매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마중물에 한한다. 그렇게 되면 (나)는 a~a’ 기간에 기업의 판매액이 증가하였으나, 기업이 마중물을 제공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이 얼

마나 발생했는지 알 수 없으며, 또한 4문단에 마중물에 투입한 비용이 과도하여 매출이 증가하였지만 이윤이 남지 않을 수 있다고 했으므로 기업의 이윤이 증가했다고 말할 수 없다.

① (가)와 (나)는 시점 a에서부터 판매액이 증가했다가 a' 이후에 감소되고 있기에, a에서 마중물이 투입되면서 판매액이 증가되다가 a'에서 마중물 제공이 중단되면서 판매액이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3문단에서 보면 기업은 마중물을 이용한 마케팅을 통해 마중물이 중단된 이후에도 소비자의 지속적인 구매를 이끌어 내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고 했다. (가)는 이러한 기업의 의도가 충실히 반영된 경우이다. ④ (나)는 일시적인 판매액의 증가는 있었으나 효과가 지속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⑤ (다)는 제품 판매액은 변화가 없으나 a시점에서 기업의 자금으로 마중물이 투입되므로, 기업의 이윤은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 과학 ****

□ 출전: 김인목, ‘수학 없는 물리’

26. [출제 의도] 내용 추론하기

3문단에서 ‘운동 방향이 변한다면 속도는 변한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자동차가 원운동을 할 때 자동차의 방향이 계속 바뀌어 속도가 달라지므로 적절한 추리라 할 수 없다.

②는 1문단, ③은 3문단, ④는 5문단, ⑤는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27. [출제 의도] 세부 정보 적용하기

토끼의 경우 0초에서 1초까지 속력은 4cm/s, 1초에서 2초까지 속력은 8cm/s가 된다. 2초에서 3초까지 속력은 10cm/s, 3초에서 4초까지 속력은 13cm/s, 4초에서 5초까지 속력은 15cm/s가 된다. 따라서 토끼의 속력은 4cm/s, 8cm/s, 10cm/s, 13cm/s, 15cm/s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거북이는 초당 10cm/s로 같은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다.

① 거북이는 초당 이동 거리가 같기 때문에 속력이 일정하다. ② 0초에서 1초까지 토끼의 속도는 4cm/s, 거북이의 속력은 10cm/s로 거북이가 빠르다. ③ 둘 모두 5초 동안 50cm를 이동하므로 평균 속력은 같다. ⑤ 토끼는 속력이 변하므로, 가속도 운동을, 거북이는 직선 방향으로 속력이 일정하므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

**** 예술 ****

□ 출전: 홍태희, ‘3일 만에 읽는 서양 미술사’

28. [출제 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4문단을 보면 사실주의는 평범한 세속의 삶이 예술 전반의 본격적인 소재로 등장했다는 내용이 있다.

① 사실주의가 사진술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을 이 글에서 찾을 수 없다. ② 3문단에서 낭만주의가 대상을 감성적이며 격정적으로 드러냈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객관적 묘사’는 적절하지 않다. ④ 신고전주의 경향과 사실주의의 계승 관계는 본문에서 찾을 수 없다. ⑤ 5문단에서 미술 작품의 감상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삶을 가치 있게 실현해 나갈 수 있다.

29. [출제 의도] 글의 관점을 적용하기

① 쿠르베의 관점은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예술이라고 보았다. 유치진의 ‘토막’은 이런 관점을 보여주므로 관점이 같다.

②는 꿈의 세계를 그림의 소재로 하였고, ③은 환상의 세계를 표현하였다. ④는 현실을 과장되고

실험적인 방법으로 표현하였으며, ⑤는 이국적인 배경을 소재로 왕자의 낭만적 사랑을 다루고 있으므로 현실을 사진으로 기록하듯 사실적으로 드러냈다고 할 수 없다.

30. [출제 의도] 감상의 적절성 파악하기

(가)는 역사화이며 선명한 화면과 균형 잡힌 구도로 보아 신고전주의 작품이다. (나)는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공포감을 강렬한 색채로 생동감 있게 표현한 것으로 보아 낭만주의 작품이다. (나)는 낭만주의 작품이며 그리스 독립 전쟁을 소재로 하였으므로 복고적 취향이라 할 수 없다. 복고적 취향은 로마 건국의 역사화인 (가)에서 나타난다.

① 2문단 ‘엄격한 구도와 붓 자국 없는 매끈한 화면’에서, ② 2문단의 ‘절서 정연한 통일감과 입체감 있는 형태’를 통해, ④ 3문단의 ‘객관보다는 주관율, 지성보다는 감성’의 내용을 통해, ⑤ 2,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고전시가 ****

□ 출전: 이명환, ‘꿈에 단니는 길히’,
작자 미상, ‘벼룻도 쉬여 넘는 고기’,
작자 미상, ‘나모도 바히들도 업슨 뵈혜’

31. [출제 의도]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가)에서는 ‘꿈’에서 화자가 임에게 다니는 길이 자취가 남는다면 돌길도 닳을 것이라 과장하여 그리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고, (나)에서는 ‘벼룻도’, ‘구름’, 매도 쉽게 넘지 못한다며 고개가 험난함을 과장하지만 임이 오신다면 이 고개를 단숨에 넘어갈 것이라 하며 만남의 의지를 강조한다. (다)에서는 ‘가토리’와 ‘도사공’이 처해 있는 상황을 과장하며 드러내고 화자는 이들이 처한 상황보다 자신의 이별 상황이 더 절박함을 말하고 있다.

① 자연물에 의탁하고 있지 않다. ③ 과거와 다른 현재의 모습을 대비하고 있지 않다. ④ 부정적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⑤ 감정 이입의 표현이 없고, (가), (나)는 이별로 인한 상실감이 드러나지 않는다.

32. [출제 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하기

(가)의 ‘님의 집 창(窓)’은 화자가 꿈에서라도 닿고 싶은 공간이다. <보기>의 ‘달 비친 사창(紗窓)’은 임이 부재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창이 임과의 만남을 돕는 기능을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꿈길히 자취 업스니 그를 슬허호노라.’, ‘저의 한이 많습니다’ 등의 표현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자취곳 날작시면’, ‘자취를 남기게 한다면’ 등의 가정을 통해 예상되는 결과를 말하고 있다. ③ (가)의 ‘자취’와 (나)의 ‘자취’는 남겨지지 않는 것으로 화자의 마음이 전달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드러낼 수 있다. ⑤ ‘석로(石路)라도 달호리라’, ‘돌길이 반쯤은 모래가 되었을 걸’은 길의 상태 변화를 통해 임을 향한 화자의 그리움의 깊이를 드러낸 것이다.

33. [출제 의도] 작품의 내용 파악하기

‘매개 쪼친 가토리’는 화자와 비슷한 처지의 대상이다.

① ㉠은 화자에게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대상이다. ② ㉠의 ‘가리라’를 통해 화자의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④ ㉡은 계속 악화되는 상황의 열거를 통해 ‘도사공’의 암담함과 절망감이 고조되고 있다. ⑤ ‘가토리’와 ‘도사공’의 상황과 화자의 심리를 견주어 화자의 암담함이 드러나 있다.

**** 고전소설 ****

□ 출전: 작자 미상, ‘서동지전(鼠同知傳)’

34. [출제 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오소리는 본디 마음이 순박한지라’, ‘너구리는 본래 음흉한 짐승이라’와 같이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② 공간의 이동은 나타나지만 인물의 성격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④, ⑤는 이 글에 드러나지 않는다.

35. [출제 의도] 내용 파악하기

서대주로부터 양식을 얻는 것을 거절당한 다람쥐가 양식을 품고 자신의 분함을 풀고자 부당하게 송사를 제기하는 것이지 서대주의 부정을 바로잡기 위해 송사를 벌인 것은 아니다.

① 다람쥐는 서대주가 ‘언어 불순’하고 ‘대접이 경박’하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계집 다람쥐는 ‘서대주는 본디 관후장자’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통해, 다람쥐와 계집 다람쥐가 서대주를 각각 달리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과 ④ 계집 다람쥐의 ‘서대주는 본래 우리와 ~ 곡식을 쾌히 허락하여 주었으니’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중간 줄거리]를 통해 알 수 있다.

36. [출제 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의 적절성 파악하기

장자 쥐는 아버지인 서대주가 부정한 행위를 해서 소송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서대주의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고자 애쓰고 있으므로 이를 전통적 가치관이 무너졌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이 같은 천한 계집이 ~ 머뭇거리지 말라’라고 여성을 비하하며 호통 치는 다람쥐의 말을 통해, 다람쥐의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볼 수 있다. ② 다람쥐는 서대주에게 양식을 빌리러 가고 서대주는 이를 거절하였다는 다람쥐의 말을 통해 당시 빈부로 인한 갈등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③ 무죄한 서대주를 고소하려는 다람쥐를 나무라는 계집 다람쥐를 통해 순종적인 유교적 여성상에서 벗어난 새로운 근대적 여성상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④ ‘만일 ~ 실속을 차려야 한다.’라는 너구리의 생각을 통해 뇌물이 오고가는 당시의 부정적 세태를 엿볼 수 있다.

37. [출제 의도] 적절한 한자 성어 찾기

분기탱천(憤氣撐天)은 분한 마음이 하늘을 찌를 듯 격하게 솟구쳐 오른다는 의미이므로 ㉠에 적절하다.

① 각골난망(刻骨難忘)은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 잊지 아니함을 의미한다. ② 누란지위(累卵之危)는 층층이 쌓아 놓은 알의 위태로움이라는 뜻으로, 몹시 아슬아슬한 위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④ 오매불망(寤寐不忘)은 자나 깨나 잊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⑤ 전전긍긍(戰戰兢兢)은 매우 두려워하며 별별 떨며 조심함을 의미한다.

**** 현대시 ****

□ 출전: (가) 이용악, ‘그리움’
(나) 김준태, ‘참깨를 털면서’

38. [출제 의도] 작품의 공통점 파악하기

음성 상징어에는 의성어와 의태어가 있다. (가)에서는 ‘백무선 철길’이 구부러진 모양을 ‘굽이굽이’로, ‘화물차’가 느리게 달리는 모양을 ‘느릿느릿’으로, (나)에서는 ‘할머니’가 참깨를 터는 모습을 ‘술술’로, 참깨 알맹이가 쏟아지는 소리를 ‘췌아췌아’로 표현하여 대상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9. [출제 의도] 작품 감상의 적절성 파악하기

(가)는 포근하고 아늑한 ‘눈’의 이미지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화자가 상상을 통해 고향 마을로 가는 길에 보게 되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은 ‘눈’과 색채 이미지가 대비되고 있지만, 문명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힘겹고 고달픈 고향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로 볼 수 있다. 또한 화자는 검은 지붕에도 복된 눈이 내리기를 바라고 있다.

40. [출제의도] 갈래를 바꾸어 표현하기

제시문에는 화자가 시를 쓰기 전에 작성한 가상의 수필로 볼 수 있다. (나)는 참깨를 터는 경험을 통해 삶의 깨달음을 얻고 있는 시이다. (나)의 12~14행에서는 참깨를 털면서 느끼는 쾌감을 인간사에서도 경험하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낸 것이지만 인간관계에서 받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내용이 아니다. 제시문의 내용처럼 조금하게 많은 것을 얻으려는 도시적 삶에 익숙한 나는 할머니의 꾸중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반성하며, 순리대로 사는 삶,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일지라도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는 삶의 지혜를 깨닫게 된다.

** 현대소설 **

□ 출전: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41.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A]에서 구보는 ‘~ 찾아가는지 모른다.’, ‘~ 감동시킬 수 없을지 모른다.’, ‘~(으)르 겠다.’와 같은 추측의 표현을 활용해 노파와 신사에 대해 상상한 것을 드러낸다.

② 짧은 문장을 사용한 예가 거의 없고 인물의 내면 변화를 박진감 있게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③ 과거와 현재가 대비되는 경험이 없고 이를 통해 인물의 복잡한 내면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④ 인물 간의 심리적 갈등이 없다. ⑤ 서술자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구보가 경험하고 상상한 것을 서술한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42. [출제의도] 서사적 흐름에 따른 등장인물의 기능 파악하기

‘서정 시인조차 황금광으로 나서는 때’에 과거 ‘열등생’이었던 ‘벗’이 현재 ‘금시계’와 ‘애인’도 있는 당당한 존재로 달라진 모습을 통해 물질적 가치가 중시되는 시대가 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① 벗은 경제력이 뛰어나지만 구보의 경제적 어려움을 확인할 수는 없다. ②, ④, ⑤는 본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43.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의 적절성 파악하기

<보기>에서 이 작품은 세태 소설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문인들’은 줄부가 되고 또 몰락하여 가는 사람들에 해당하며 구보는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지만 그러한 현실을 벗어날 대책을 모색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① 구보는 ‘약동하는 무리들’을 보기 위해 ‘경성역’을 찾았으나 누구에게서도 인간 본래의 온정을 찾을 수 없는 모습에 오히려 고독을 느낀다. ② ‘사람들’은 옆의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일도 없고, 자신들의 사무에만 바빴으며 서로 짐을 부탁하는 일조차 없었다. 구보는 그런 ‘사람들’을 딱하고 가엽게 바라보고 있다. ③ 구보는 ‘양복 입은 사나이’가 온갖 사람에게 의혹을 갖는 두 눈을 발견하고 우울함을 느끼며 그곳을 떠난다. ④ 구보는 ‘두 명의 사나이’의 차림새를 보고 무직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한 인물들이 이곳저곳에서 눈에 띄었다는 것을 통해 당시에 무직자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시시각각으로 사람들이 줄부가

되고 몰락해 간다는 부분에서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수필 **

□ 출전: 장영희, ‘미안합니다’

44.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글의 전반부에서는 영수에게 자신의 실수를 사과하지 못하는 글쓴이의 심리가 서술되어 있고, 후반부에서는 주차 문제로 경비원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사정을 알게 된 경비원의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대비되는 인물의 모습을 통해 ‘미안하다’는 말이 주는 의미와 가치를 독자로 하여금 생각하게 한다.

② 반어적 진술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③ 이상과 다른 현실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 ④ 현대인의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있지 않다. ⑤ 사건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있지 않으며, 인물의 행동에 대해 주관적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45. [출제의도] 작품을 종합적으로 감상하기

영수의 사정을 알게 된 글쓴이는 말더듬이 비슷한 증세를 겪었던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영수를 이해하고 사과하려고 한다. 하지만 사과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생각하고 결국 사과는 하지 않는다. 이후 주차 문제로 얽힌 사건을 경험하고 ‘미안하다’는 말이 지닌 가치를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글의 흐름을 고려했을 때, 글쓴이가 영수에게 사과를 하려 했지만, 주차 문제로 얽힌 사건을 경험하고 그 사과하려던 생각을 바꾸게 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보기>와 글의 흐름으로 볼 때 글쓴이는 ㉠, ㉡의 사건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지 생각하게 될 것이다. ② ㉠에서 글쓴이는 자기 합리화를 하며 사과를 하지 않으려 하나 ㉡을 통해 자기반성의 기회를 갖는다. ④ 글쓴이는 ㉡의 사건을 통해 사과가 만들어내는 해피엔딩의 결과를 이야기한다. 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에서 깨달음을 얻은 글쓴이는 영수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